

문화예술적 정체성 · 매력 선사

전주시립예술단, 올 한해 정기공연 · 찾아가는 음악회 등 다양한 공연 선보여

전주시립예술단이 올 한해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 전주의 정체성과 매력을 담은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며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도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립예술단은 올해 15회의 정기공연과 22회의 기획·연합공연, 96회의 찾아가는 음악회, 토닥토닥 힐링 공연, 전주 홍보 공연 등 총 133회의 공연을 선보이며 시민 정서 함양과 지역문화·예술장달을 위한 문화사절단으로서 적극적인 예술 활동을 펼쳤다고 16일 밝혔다.

전주시립예술단은 지난 1966년 창설된 시립합창단을 시작으로 시립교향악단(1976년) 시립국악단(1979년), 시립극단(1984년)이 속속 창설되면서 현재 4개 예술단 189명 단원이 활동하고 있다.

특히 시립예술단은 올해 전주만의 문화예술을 선도하기 위해 △2023 전주세계문화주간 독일문화주간 △2023 동아시아 문화도시 △전주페스타 2023 등 다양한 축제와 행사에서 문화공공의료를 펼치며 전주를 찾는 국내외 방문객에게 전주만의 문화·예술적 정체성과 매력을 선사했다.

먼저 시립교향악단의 경우 62명의 단원이 성기선 상임지휘자의 지휘 아래 26회의 공연을 펼쳤으며, △독일음악의 라이벌 '바그너&브람스'



전주시립합창단 체코 콩그레스센터 공연. (사진=전주시립예술단 제공)

정기공연 △라흐마니노프 탄생 150주년 기념 특별공연 △2023 전주세계소리축제 개막공연 '상생과 회복' △전주페스타 2023 오프닝축제 등을 통해 오케스트라의 위상을 높였다.

또한 시립국악단은 57명의 단원이 심상욱 상임지휘자와 함께 △2023 동아시아문화도시 전주 개막식 △정기공연 '진화(進化)' 시리즈 등을 선보였다.

45명의 시립합창단원은 김철 상임지휘자의 지도 아래 올해 총 32회의 공연을 펼쳤으며, 총 12개 학교를 대상으로 기존에 오래된 교가를 학생들과 함께 편곡해 영상과 함께 제공하는 '초·중·고교 교가 녹음

제작 지원사업' 등 뜻깊은 사업도 추진했다.

특히 시립합창단은 10년 만의 해외 공연인 '헝가리, 체코, 오스트리아 3개국 유럽순회 초청공연'을 통해 10일 동안 서양음악의 본고장에 전주를 알리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전주시립예술단은 교향악단의 영아티스트(청소년) 콘서트와 데뷔콘서트(일반인), 국악단의 젊은 예인콘서트 등 매년 신인 유망주 발굴을 위한 오디션을 통해 재능있고 우수한 청소년과 신인 음악가에게 무대 경험과 자기표현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중소기업 노사화합한마당 축제 개최

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 근로자 자녀 장학금 수여 · 공연 등 다채롭게 진행

강한 경제 전주를 이끌어가는 중소기업 경영자와 노동자가 함께 어울리는 화합 한마당 잔치가 펼쳐졌다.

전주시와 (사)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회장 강동오)는 16일 전북여성가족재단과 전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2023년 전주시 중소기업 노사화합한마당 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제 위기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중소기업인에 대한 표창 수여식과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를 위한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이와 함께 이날 행사에서는 레크리에이션과 장기자랑 등 중소기업 근로자와 가족이 함께 즐기며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됐으며, 유명 포크 가수 '박하영 밴드'의 감미로운 공연도 펼쳐졌다.



전주시와 (사)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는 16일 전북여성가족재단과 전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2023년 전주시 중소기업 노사화합한마당 축제'를 개최했다.

강동오 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 회장은 "이번 노사화합한마당 행사가 중소기업 근로자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었기를 바란다. 앞으로

도 중소기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해 우리 연합회가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청렴도 향상 촉구 · 공공기록법 위반 여부 등 지적

전주시의회는 16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개시했다. 기간은 24일까지 9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먼저, 이성국 의원(효자동)은 "2022년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하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주시는 4등급으로 전북도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 2021년까지 7년 연속 2등급을 받아 오다 개선된 평가체제로 4등급을 받은 것은 전주시가 새로운 부패환경과 변화된 반부패 정책 방향에 대응하지 못한 결과임을 방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전주시 청렴 수준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전주시 청렴 정책과 방향에 대한 점검과 실효성 있는 청렴

교육을 통한 직원의 인식 제고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천서영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은 "시민들에게 시정소식 및 정보를 전하는 '전주다움'이 우범기 전주시장을 홍보하는 잡지로 전락했다는 비판과 '시장에게 잘 보이려 허냐'는 시의회의원들의 건의도 묵살, 시장에게 과잉 충성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신유정 의원(조촌, 여의, 혁신)은 공공기록물(전주시 공식 유튜브) 운영 등 대해서 언급했다. 신 의원은 "현재 전주시 유튜브 채널에는 전체 190개 동영상 외 95개의 영상이 숨겨져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최종 승인자의 관리로 수십 개의 영상이 숨겨져 있는

/김옥기 기자

전주시 글로벌 인재 양성 영어능력 강화사업 장학생 모집

전주시와 (재)전주인재육성재단은 오는 27일까지 글로벌 우수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한 '2024년도 제1기 전주시 글로벌 인재 양성 영어능력 강화사업 장학생'을 공개 모집한다.

이 사업은 글로벌 마인드와 애호심을 지닌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말하기 위주의 국내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단기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은 △어학집중 코스와 자체평가, 우리지역 탐방 등으로 구성된 4개월 과정의 국내 연수 △글로벌기업 및 대학투어, 해외도시 투어 등 약 2주 과정의 국외연수 △개인 활동보고서 작성 및 보고회 등 1개월 과정의 활동보고로 진행된다.

연수 국가는 미국 등 영어권 국가로, 오는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선발인원은 10명이며,

이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별도로 1명을 선발한다. 연수생 자부담 비용은 1인당 150만 원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면제된다.

지원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전주시민의 자녀로, 전라북도 도내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이다. 성적은 직전 학기 B+이상이어야 하며, 선발될 경우 어학연수 참여를 위해 2024년도 1학기를 휴학해야 한다.

/김옥기 기자

전북현대 축구팬 위해 1994번 시내버스 노선 다시 달린다

25일부터 주말 휴경기 운행 재개

프로축구 전북현대를 응원하는 축구팬에게 관람 편의를 제공해온 1994번 버스가 다시 달리게 됐다.

전주시는 오는 25일 오후 2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광주FC와의 프로축구 K-리그 전북현대 홈경기부터 전북현대모터스 축구팬을 위한 시내버스 1994번 노선이 운행을 재개한다고 16일 밝혔다.

1994번 노선은 평화동에서 월드컵경기장까지 운행하는 전북현대모터스 홈경기 관람을 위한 전용 노선으로, 지난 2015년부터 운행해오다 지난 2020년 프로스포츠 경기 중지 및 관중입장 금지 등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운행을 중단했다.

시는 이번엔 운행을 재개하는 1994번



전주월드컵경기장 전경

노선을 주말 휴경기에 한해 운행하기로 했다.

운행방식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평화동 종점에서 출발해 전주한옥마을과 시·고속터미널, 전주종합경기장, 전북대학교 등 주요 거점을 거쳐 전주월드컵경기장까지 운행된다.

이를 위해 시는 전주시내버스 8~9대를 투입해 경기 시작 약 2시간 전부터 5~10분 간격으로 평화동 종점에서부터 운행하고, 경기 종료 후에는 만차가 됐을 때 순차적으로 출발할 계획이다.

/김옥기 기자

